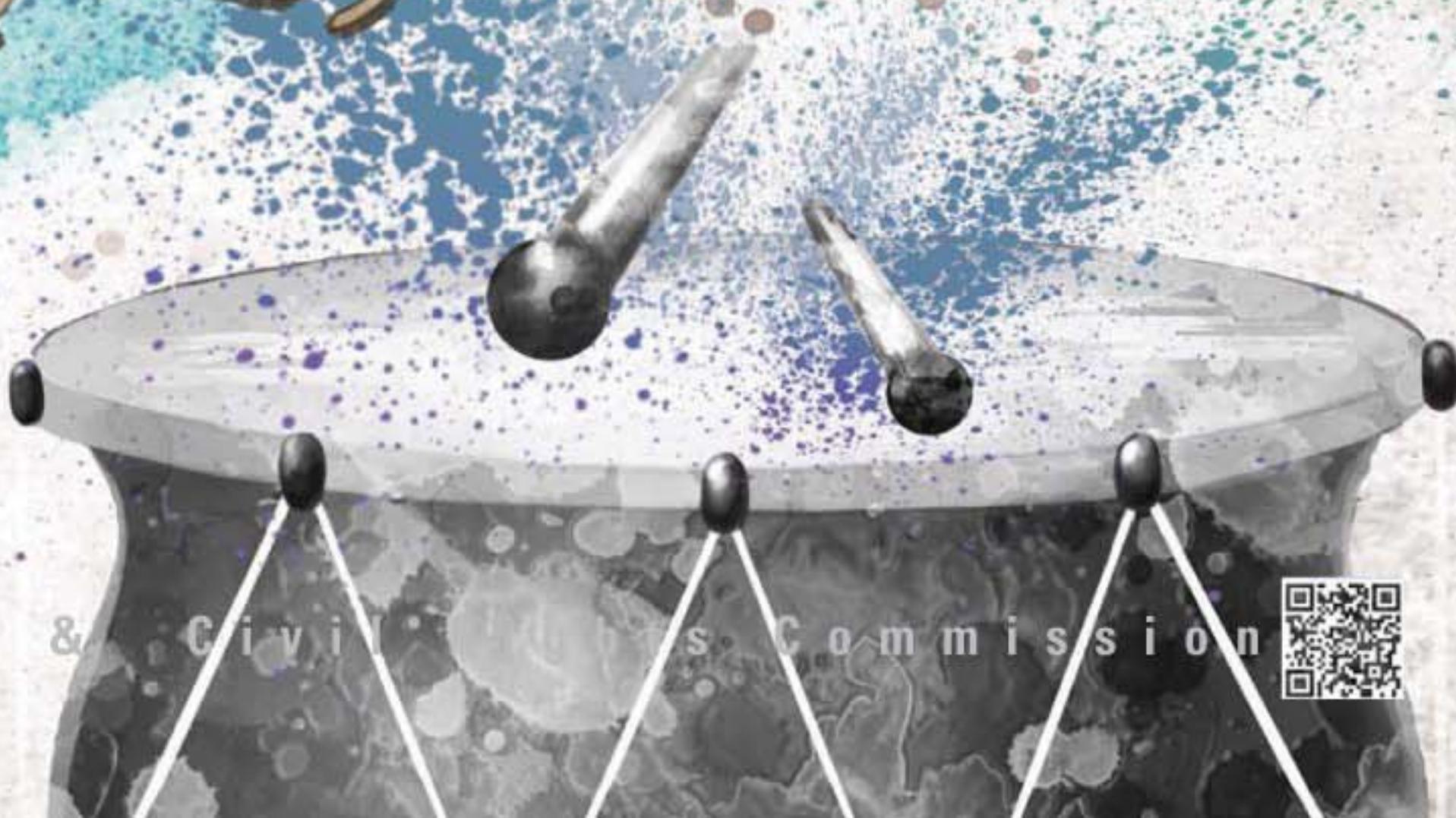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

2011 VOL 23 11+12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Anti-Corruption & Civil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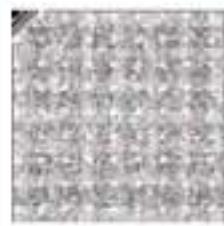


내일 새로운 희망의 빛을
따스하게 피어 올리기 위해
하늘도 바람도 호수와 나무도
잠시 잠들었습니다.

오랜시간 한 자리에 머물며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온 풍경

깨끗한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그 속에 있습니다.





희망공감

기획특집

04 Special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현장을 찾다

08 Global Issue

아프리카 3개국 방문한 김영란 위원장,
글로벌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심어

12 ACRC Issue

110으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

16 국민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원금 지급요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

18 국민에 의한

우리 이웃에 더 큰 관심을… '쪽방촌의 겨울나기'

20 국민을 위한

긴 세월 기다린 대대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24 지켜줘요! 국민권익!

한국전 유족 보상금 새로운 지침마련

26 오피니언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행복누림

28 우리 문화

겨울 문턱에서 만난 산사 – 안동 봉정사

32 문화지킴이

한류, K-POP을 타고 세계로 흐른다

36 법과 권익

Copy Right? Copy Left? 인터넷 저작권 바로 알기

38 건강한 삶

갈등을 극복하려면? 연결고리를 찾아라!

40 카메라에 비친 풍경

국토 정중앙, 양구 두타연에서 청정자연을 만나다

44 포커스 온

어른들을 위한 성장 드라마 <완득이>

46 또 다른 세상

우린 지금 행복한가?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48 ACRC News

50 편집 후기

발행일 2011년 12월 28일(격월간, 통권 23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우경종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전화 02 360 2761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디자인 /인쇄 (주)성우애드컴 02 890 0904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imonthly Magazine of ACRC

11 + 12

2011 vol. 23

국민
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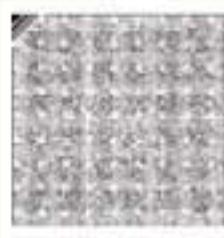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올해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공직자 부패를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로 여기는 부패 관용적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사태, 공직자 자녀 특별채용, 스폰서 검사 논란 등 최근 들어서도 끊임없이 공직자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알선·청탁 관행과 사적인 이익 추구에 따른 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근원적인 처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과연 어떻게 해야 알선·청탁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들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공정한 사회의 씨앗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공개토론회’ 현장을 찾다





청탁수수 근절이 부패방지의 시작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세계경제 포럼(WEF)에서 평가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142개국 중 24위인데 반해 '정부 정책 수립의 투명성'은 최하위권인 128위에 그쳤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반부패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부패방지법 제정 이래 지난 10년 간 우리 정부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이 거둔 성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품수수 금지와 같은 종래의 후진국형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한 스폰서, 가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종래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행위도 부패 행동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패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알선·청탁 관행과 공직자 의사적인 이익추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매우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공직자의 사의추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탁관행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고견을 듣기 위해 '공직자의 사의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약 120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과 비롯하여 8인의 토론자들(이성남 민주당 국회의원,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과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두얼 KDI 연구위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



위원장,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하였다.

OECD 회원국 다운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공직자의 사의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향응 수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우자, 가족, 친족 등을 통한 편법적인 수수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강연사례금, 기부금 등이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형별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의추구 금지 법안에서는 금품 제한 대상을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 공무수탁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인까지 확대하고, 금지 금품 등의 범위를 마일리지 및 포인트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품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 한도를 정하고,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로부터 받는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금액, 사용 내역은 공개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둘째, 공직의 사적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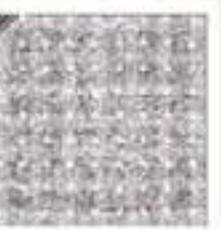
이는 공직자가 자신 및 가족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을 직접 처리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 시에는 직무회피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며, 회전문 인사 폐해 방지를 위해 민간에서 고위직·개방직 등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전 2년 내 재직한 기업, 단체 등과 관련된 직무를 임용 후 2년까지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법에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족을 계약직이나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이성남

의원은 “회전문 인사 방지책은 자칫 유능한 인물의 공직 진출을 막을 수 있으며, 공무원 가족의 채용금지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셋째, 직무청탁,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 공무원의 90%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은 부패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알선·청탁과 관련된 범죄는 형법, 특가법, 변호사법 등에서 금품과 결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사익금지 법안에서는 일차적으로 판례와 부패방지법 상 부패행위를 기초로 하여 청탁행위 개념을 ‘공직자에게 직무, 이권, 인사, 채용 등과 관련된 행위를 강요·권고·제의·유인·요구·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청탁행위를 4개 분야로 분류하여 금지 또는 허용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해 박인환 건국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에 참석한 방청객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탁의 유형별 처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의 강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이 아닌 실효적 체계로 접근해야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가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인들까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공직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공직자윤리법’에 비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먼저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사익추구금지법안이 과잉 규제, 처벌의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며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부패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 국민의 감정적 요소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소신 있는 행정수행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이에 대한 고려를 요청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무엇보다도 충격적이고 대대적인 우리 사회의 개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청탁수수 금지 문제는 입법화로 가기 전에 정치적, 사회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는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의 “부패 문화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과 관습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다.

입법의 필요성과 함께 관장기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별도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분명한 것은 토론자 모두가 ‘사익추구금지법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점이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약속이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통해 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프리카 3개국 방문한 김영란 위원장,

글로벌 국민권익위원회 이끄는 삶





africa

2011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계 옴부즈만 협회 이사회 참가차 아프리카를 방문한 김영란 위원장은 잠비아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 기관들을 대표하여 국제기구로써의 협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남아공 국민권익보호원과 말라위 부패방지청을 방문하여 기관장 면담을 통해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교민 간담회와 현지 교육시설 기부물품 전달을 계기로 세계인의 권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미지를 심고 왔다.

남아공 국민권익보호원과 말라위 부패방지청 방문으로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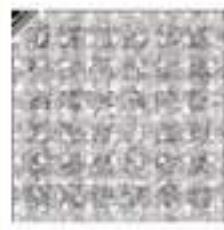
세계 옴부즈만 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정기 이사회 회의(Board of Directors Meeting)에 참가하기 위해 아프리카 출장길에 오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10월27일 남아공 국민권익보호원(Public Protector)을 방문하여 마돈셀라 원장(Adv. Thuli Madonsela) 등 주요인사를 만나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돈셀라 원장은 “접수된 민원의 50% 이상을 한 달 이내에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남아공 권익보호원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보호원의 노력으로 최근 부패혐의 장관 2명이 해임된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한 후, 우리 위원회의 민원처리 및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마돈셀라 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돈셀라 원장은 국민신문고(e-People)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권익위 대표단은 28일 말라위(Malawi) 부패방지청





(Anti-Corruption Bureau)을 방문하여 남포타 청장(Director Mr. Nampota)과 면담을 갖고, 부패방지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남포타 청장은 “지난 10년간 전직 대통령을 포함 10명의 장관들이 국고 유용 등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부패가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하고 비리에 대한 불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관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김영란 위원장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영향평가 등 권익위 반부패정책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기술전수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IOCA) 자금지원을 통한 외국공무원 초청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였고, 남포타 청장은 말라위 부패방지청도 초청교육에 참가하기를 희망했다.



IOI 이사회 잠비아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을 대표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8월 IOI 아시아 지역이사(Board Director of Asian Region)로 선출된 이후, 잠비아(Zambia) 리빙스턴(Livingston)시에서 개최된 IOI 이사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확실한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0월30일 오후 마카오(Macao) 염정공서(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CCAC) 풍(Fong) 위원장과의 아시아 지역 미팅에서 김 위원장은 “신임 아시아 지역부회장(Regional Vice President)은 지역을 위해 어떤 공헌과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지역부회장에 출마한 풍 위원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한편 알란 라이(Alan Lai) 홍콩 옴부즈만(Hong Kong Ombudsman)은 홍콩이 내년 5월에 주최하는 IOI 아시아지역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국민신문고에 대해 발표해 주기를 요청해 왔다. 또한 IOI 회장(president)인 뉴질랜드(New Zealand) 웨이켐(Ms. Beverly Wakem) 옴부즈만이 내년에 웰링턴(Wellington)시에서 개최하는 IOI 총회에서도 김영란 위원장에게 국민신문고에 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권익위 대표단이 준비한 의제인 ‘아시아 옴부즈만 비교연구’ 정책 용역 결과를 발표하여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일 년간 IOI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재무보고에 이어 국제기구의 위상에 맞게 IOI의 규정(By-law)을 발전적으로 개정하고 회비를 차등화하는데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내년 IOI 총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아프리카 옴부즈만 협회(African Ombudsmans and Mediators Association, AOMA) 대표단과의 협력 논의도 이루어졌다.

IOI 이사회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이사인 권익위의 높아진 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향후 협회 활동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재외국민과 현지인의 마음에 다가가는 권익위

김 위원장은 아프리카 방문 중 대사 면담과 교민 간담회 등 재외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일정도 챙겼다. 10월27일 오후 주남아공 대사관저에 초청받은 김 위원장은 이윤(Yoon Lee) 대사를 면담하면서 출장 목적을 설명하고 해외동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조 노력을 당부하였다. 27일 저녁과 29일 저녁 남아공 한인회(South Africa Korean Association) 이기면 회장(James Lee, Chair-man) 등 10여 명, 말라위 한인회 조용덕(Yung-Duk Cho) 회장 등 3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재외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요일인 10월 29일에는 알차고 보람된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말라위에서 봉사활동 중인 한국인 신부님의 초청으로 수도 릴롱궤(Lilongwe) 소재 차방고(Tsabango) 초등학교에 방문한 김 위원장은 150여 명 학생과 교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천막, 학용품, 축구복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릴롱궤에 한국기업 대양상선(Daeyang Shipping Co.)이 신축하여 기부한 대양누가병원(Daeyan Luke Hospital)과 간호대학(Nursing College)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소개받고 봉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아프리카 3개국 출장을 통해 권익위는 IOI 이사회에서 지역이사로써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방문국가의 반부패·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발판을 닦았다. 또한 재외국민 권리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현지 교육시설에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글로벌 이미지를 심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10으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채팅 전화상담 및 SNS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것. 이는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효과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들 곁으로 한발짝 더 가까워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살펴보자.

정부대표전화 110 콜센터 '업그레이드'

오랫동안 국민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담당해 온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대한민국 전국 317개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어, 복잡한 행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행정업무를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민원은 물론, 사회안전망 상담과 세금, 공금요금에 대한 불편사항 외에 생계침해에 대한 신고까지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상담 받을 수 있는 국민 도우미인 셈. 그간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담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110 콜센터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유선 전화’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특성상 응답내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유선 전화는 1차원적인 음성 통화만 가능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민원인의 반응을 살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상담사의 진의가 전달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국민들과 더욱 가까운 상담 시스템으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업그레이드 됐다. 바로 새롭게 시작된 화상전화 상담 덕분이다. 화

ACRC
ACRC.go.kr



상전화 상담 이후 무엇보다 청각 장애인을 비롯해 기존 유선 전화에 불편함을 호소하던 이들의 상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손쉽게 이용 가능한 정부 민원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에 부부사진을 공동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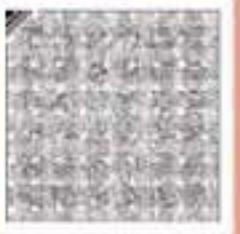
수화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사람. 상담사가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민원인에게는 ‘홍보사진’이 전송되며 잠시 기다려 달라는 안내가 나간다.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화면을 통해 민원인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상담이 완료된다. 새롭게 화상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모습이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변신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상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110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돼 1천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110 페이스북(110call)과 110 트위터(@110callcenter)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정미선 상담팀장은 “상담사와 직접 마주보고 상담할 수 있는 화상상담에 대한 반응이 높습니다. 또한 채팅 상담과 온라인 상담 채널이 추가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손쉽게 국민들이 110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복잡하게 어려졌던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훨씬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네요”라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변화로 인해 늘어난 업무에도 웃음을 보였다.

이제 행정업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0콜센터로 전화해 보자. 친절하고 해박한 상담원들 그리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HOPPE EMPATHY

희망공감

국민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원금 지급요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

국민에 의한

우리 이웃에 더 큰 관심을… '쪽방촌의 겨울나기'

국민을 위한

긴 세월 기다린 대대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줘요! 국민권익!

한국전 유족 보상금 새로운 지침마련

오피니언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원금 지급요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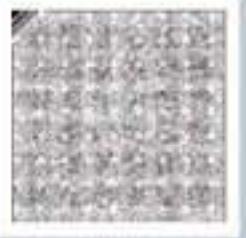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원금 지급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개선계획에 따라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해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를 재결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거부에 따른 쟁점

육류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하는 한 업체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라 한다)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업체가 2009년 6월 26일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계획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어, 이를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로 봐야한다며 개선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피청구인이 개선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근거로 내세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구 노동부 고시, 2010. 1. 1. 시

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 제7조 제6항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개선계획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행위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행심)은 이에 개선지원금의 법적성



격, 고시의 법적성질과 해석, 2010년 1월 1일 개정 · 시행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의 소급적용 가능성 및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이번 재결은 향후에도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보조사업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팽팽했던 당사자 간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고시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한 건축 인 · 허가신청을 고용환경개선 시작으로 볼 만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다. 또한 개선계획서를 제출 할 당시 피청구인이 건축 인 · 허가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승인받은 개선계획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면 개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어려운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신축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은 고시 제7조 제6항에 사업주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설 · 설비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 노동부장관의 지침과 2010년 1월 1일 개정 · 시행된 고시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 · 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 · 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도의 도입취지 고려한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

중행심은 우선 고시된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개선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든 구 노동부장관의 지침이 그 해석의 정확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언상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건축 인 · 허가신

청을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의 예로 제시한 2010년 1월 1일자 시행 고시를 반대로 해석하면,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승인된 개선계획서에 적용될 소극적 요건에는 건축 인 · 허가신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행심은 청구인이 2009년 6월 26일 피청구인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승인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7월 2일 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피청구인이 한 승인의 하자가 청구인의 부정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인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이 인정됐다. 따라서 청구인이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증원하는 등 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건축 인 ·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개선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행심은 이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 · 부당한 행위라고 재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재결은 행정청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히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의 내용과 제도의 도입취지,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글 황준호(아시아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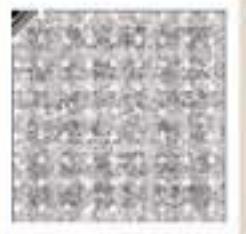
지금 쪽방촌은 겨울나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여름내 가동을 멈춘 보일러는 놀래 쓰러지듯 쿨럭이며 검은 연기를 쏟아낸다. 해진 보도블록을 다듬느라 여념 없는 주민 사이로 쓰러질 듯한 나무집들이 줄 서 있다. 반면 집주인의 무관심으로 밑창이 터져버린 2층집은 눈이라도 내리면 지상으로 쓰러질 듯 휘청거린다. 이들은 힘이 없고 외롭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사람, 바로 사람들 의 관심이다.

우리 이웃에 더 큰 관심을... **‘쪽방촌의 겨울나기’**

안타까운 쪽방촌의 삶, 그 안에 ‘사람’이 있다

이해완 씨는 종로구 돈의동 내 위치한 0.8평 규모 쪽방에서 지낸다. 쪽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 일찍부터 복지회관으로 향한다. 그는 ‘돈의동 사랑의 쉼터’ 지하 목욕탕에서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이어 아침도 고사하고 동네 어르신들께 문안인사를 하러 돌아다닌다. 점점 사나워지는 동장군의 행패에 밤새 별고 없었는지 묻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다.

이해완 씨는 쪽방촌의 토박이다. 그의 삶은 가난과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다. 그래도 살만했다. 불행은 그의 어머니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다. 집을 나왔다. 구걸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었다. 사계절이 겨울이었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서 직업을 갖고 쪽방까지 구해 삶을 지탱했다. 거기까지였다. 달려가 뭔지도 몰랐던 그에게 ‘외환위기’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일대 사건이었다. 나이도 많



고 장애까지 있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노숙인으로 전락했다. 2005년 장애인협회에서 주선해 박스를 쌓는 일을 할 때까지 거리를 전전했다. 일을 하면서 100만원 남짓한 돈을 벌었다. 하지만 허리를 다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씨에게 가장 큰 소원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쪽방 주민들과 더욱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을 뿐이다.

그런 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가 있다. 바로 '휠체어 홍승준' 씨다. 이해완 씨가 홍씨의 방문을 열자 휠체어 위에 굽은 홍씨의 등이 보였다. 홍씨는 0.8평되는 방에 TV와 식기만을 두고 휠체어 위에서 생활한다. 휠체어 위에서 밥을 먹고 그 위에서 잠을 잔다. 휠체어를 목숨보다 아끼는 그다. 기자가 취재를 간 날 홍씨는 갑자기 자체 휴업에 들어간 휠체어 때문에 이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씨가 AS센터에 전화를 거는 것으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홍씨의 응급처지를 마치고 이씨는 쓰러져 가는 2층 쪽방을 바라봤다. 집주인의 관심 밖으로 멀어진 쪽방은 바닥이 터져 내장이 쏟아지기 일보직전이었다. 내장이라고 해도 어디선가 주어온 거무튀튀한 이불이 다였다. 이곳 주민들은 앞으로 내릴 눈을 걱정하고 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오직 사람,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주거 생태계 최전선에 위치한 쪽방은 소외된 서민들의 상징이다. 쪽방촌은 기존주택 내의 0.7~1평 규모의 방을 여러 개로 쪼개 넣어 만든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통상 방 1개에는 1인 가구가 거주하며 화장실이나 세면장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국토해양부가 추산한 비주택 거주수는 5만 270가구. 이중 집이 없는 노숙인과 부랑인(26%) 등을 제외한 3만 7125가구가 쪽방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43만원 중 절반 이상(58%, 한 달 23만~25만원)을 방세로 내야한다.

이들은 매년 겨울이 오면 두렵다. 물가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쪽방 방세마저 올랐다. 방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다 지하철역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중 자활의지가 있는 1132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가구 수도 적지만 지원받은 이들 중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소화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관리비 4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쪽방촌 주민은 드물다. 나이도 50~60대이며 몸도 성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드물게 빌딩 청소 등으로 돈을 벌어도 한 달 100만~140만 원을 벌어온다. 임대주택 보증금이 100만원이며 관리비가 40만 원인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화순 돈의동 사랑의쉼터 관장의 설명이다. 이 관장은 돈의동 쪽방촌에서 약 20가구 가량을 임대주택으로 보냈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보냈지만 이들의 생활은 빠듯하다. 이 관장은 “쪽방촌 거주민에게 주택 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이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있다”고 말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부의 구호가 단순히 허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진짜 서민을 돌볼 수 있는 더 따뜻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곳 쪽방은 그때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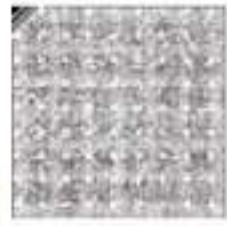
글 최대규 · 사진 김민정

긴 세월 기다린 대대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진동 문제 40년만에 해결

옆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른다면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징그릴 것이다.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이곳 주민들은 원치 않게 오랫동안 징그려야만 했다. 귀만 징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징그려야 했다. 고함을 지른 사람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소음을 내는 포 사격이 마을 바로 앞에서 40년간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징그린 마음을 권익위가 위로했다. 이제 그들은 웃을 수 있을 것이다.





01 김영란 위원장이 포사격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문제가 된 포사격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02 제22보병사단 측은 우선 130mm 포 사격을 이달 말부터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나랏일이라 생각하고 인내한 시간

고성은 다양한 얼굴을 지닌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간 거점인 고성에는 산, 바다, 호수, 계곡 등 모든 수려한 자연경관이 자리 잡고 있다. 동해의 절경을 만날 수 있는 백두대간 줄기와 멋스런 풍류를 만날 수 있는 해안절벽, 한국 4대 사찰 중 한 곳인 진봉사, 자연호수와 죽도가 어우러져 있는 송지호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안보관광지인 통일전망대까지 사시사철 아름다운 고장이다. 그 중에서도 간성을 대대리는 고즈넉한 별판 속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마을 뒷산인 노구산(老 구山)이 마치 세 마리의 큰 학(鶴)이 사이좋게 날개를 펴고 앉은 것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터(垈)라고 하여 '학터' 또는 학대리(鶴垈里)로 불리기도 했던 이곳은 오랜 역사 속에서 큰 부침 없이 지내왔던 곳이다.

이 조용한 마을이 시끄러워진 것은 약 40여 년 전. 마을 시가지 가장자리에 항공작전을 위한 비행장이 설치되면서부터였다. 당시는 1970년대로 아직 우리나라 곳곳에 6·25의 상흔이 남아있고 북한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드셀 때였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곳 주민들은 덤덤하게 비행장을 받아들였다. 그

리고 약 10년 후 군은 이 비행장을 포 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 평균 약 60일간 포를 사격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만큼 큰 소음이 문제였다. 포 사격장 인근 가축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주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외지인들은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출행탕하기 일쑤였다. 사격장에서 불과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에도 지장을 받았다. 그렇게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 대대리 주민들은 ‘나랏일’이라는 생각에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심각한 소음에 조사관도 놀란 대대리 포 사격장

대대리 주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련 군 기관인 육군 제22보병사단과 8군단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또 군청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어떤 속 시원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대대리 주민들의 공통된 불만사항이었다. 결국 지난 8월 지역 주민들과 고성 중·고교 학생 총 1,320명은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냈다. 이는 마침 그 시기에 해당 지역에 열린 이동신문고를 통해



03 1970년대 비행장으로 쓰였던 대대리 포사격장. 마을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04 포를 쏘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 바로 그 위를 지나간다고 한다. 05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주민들과 군 관계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 06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김영란 위원장과 민원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접수됐고 김영란 위원장은 이에 여러 차례 군과 협의를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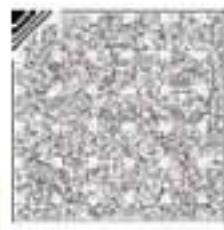
우선 접수 후 약 4개월간 권익위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히 1982년부터 마을에서 불과 300~500미터 떨어진 상리 북천둔치 및 상리비행장에 포사격장이 운영되어왔으며, 105mm · 130mm · 155mm 등 각종 포 사격 훈련이 연간 60일 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들이 파견돼 1차 실지조사를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9월에 실시된 2차 실지조사에서는 155mm 포 사격의 소음을 측정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했다. 측정결과 소음기준의 1.5배~2배에 가까운 소음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대대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과 소음 측정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에 방문 및 지원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군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결과적으로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소요예산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 대대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포사격장 이전 합의 가능성성이 보이게 된 것이다.

40년 만에 대대리 포사격장 해법 제시

2011년 11월 29일, 궂은 날씨 속에도 고성군청에는 대대리 주민들과 권익위, 육군 제22보병사단 및 군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4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





현장조정회의'가 열리는 날, 주민들의 근심을 씻어내기라도 할 듯 비가 세차게 내렸다.

김영란 권의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는 그간 못 다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오랜 세월 포 사격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각 기관들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특히 고성고등학교 학생 대표로 참석한 윤용한 학생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는 권의위, 고성군청, 군 기관 및 참석한 모든 '어른'들이 숙연해졌다. 이 밖에도 이영일 민원대표를 비롯한 신청인들은 주민들을 대표해 좀 더 빨리 국가에서 민원을 받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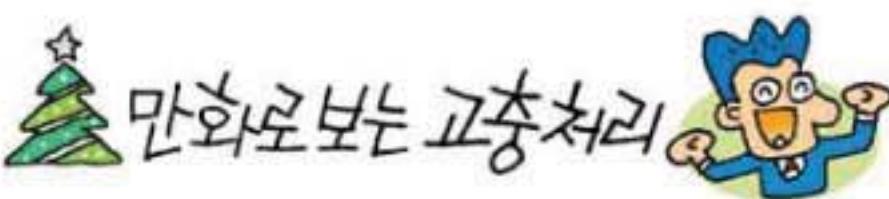
이에 각 기관을 대표한 관계자들도 특히 이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반기 1회 대대리 포 사격장 이전 추진 상황을 지역주민대표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

다고 다짐했다. 김영란 위원장도 조정회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포 사격장 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관리할 것을 약속했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군은 12월부터는 130mm 포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55mm 포는 연간 6일만 사격하기로 했다.

105mm 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격장 이전지를 선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이전 전이라도 고성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에는 포 사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군의 합의 내용에 대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대대리 주민들도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100% 만족스러운 조정안은 아니지만, 드디어 가시적인 해결책이 보인다는 점에서 기뻐한 것이다. 긴 세월 인내하며 불편을 감수했던 대대리 주민들, 권의위의 조정으로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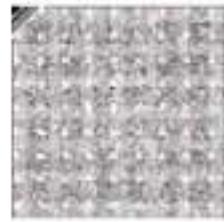


일러스트 유환석

한국전 유족 보상금 새로운 지침 마련!!

- 60년 만의 보상금 5천원에서 946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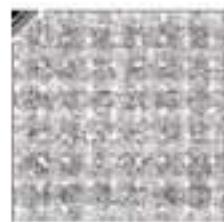
●●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식적 준거도 부족하다. 장애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모든 정책이 오로지 권력자나 소수의 견해만으로 결정되었던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소수의 견해를 배제하는 관행이 깊게 뿌리를 내렸다. “장애인? 그거 다 해 봐야 몇이나 돼?”라는, 반인본적·반장애적 사고가 정책 전반에 투영됐다. 그 결과, 국가는 철저하게 국민과 유리되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관료적 병폐는 깊어졌다.

●●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한 사회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관료적 시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분류법은 산술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통계적으로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위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모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철저한 자본주의적 원리가 작동하는 ‘강자 독식’의 사회에서 소수는 배제와 배타의 벽을 결코 넘을 수 없다.

●● 장애를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은 ‘이미 장애를 가진 사

람’과 ‘아직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시각이다. 장애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일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결과를 두고 그들이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지만, 그들은 항상 그늘진 곳으로만 내몰렸다. 여기에는 견고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개인의 인격과 신체를 모독하는 욕설을 사용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 저변을 형성했다. 그러나 장애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만큼 누구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한 사회는 이미 장애를 가진 사람과 아직 장애를 갖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이다.

●● 사실, ‘다수의 선’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소수의 선’이 훨씬 더 선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권리은 더 이상 시혜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도 당연히…’라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조금 불편한 심신의 결함’이라는 산문적 수사에 묶여서는 안 된다. 장애란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애를 송두리째 포박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최대 가치인 ‘평등’이 권리의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PPY ENJOYMENT

행복누림

우리 문화

겨울 문턱에서 만난 산사—안동 봉정사

문화지킴이

한류, K-POP을 타고 세계로 흐른다

법과 권리

Copy Right? Copy Left? 인터넷 저작권 바로 알기

건강한 삶

갈등을 극복하려면? 연결고리를 찾아라!

카메라에 비친 풍경

국토 청중앙, 양구 두타연에서 청정자연을 만나다

포커스 온

어른들을 위한 성장 드라마 <완득이>

또 다른 세상

우린 지금 행복한가?—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ACRC News

편집 후기

겨울 문턱에서 만난 _____ 산사

안동 보정사





보통 사람들이 절을 찾을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한 기도를 위해서고,
둘째는 아늑하고 조용한 산사의 정기를 찾아 절을 찾는 것이다.

맑은 천등산 자락에서

안동을 내려다보는 봉정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을
너른 마음으로 품으며
수백 년을 견디어 왔다.



봉정사의 새벽. 짙은 안개가 절로 숲연한 기분에 빠지게 한다.

스님들의 불경 소리만 산자락을 흔드네

흔히 '절간 같다'는 말이 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상황을 일컬어 쓰는 말이지만 안동의 봉정사는 그 역사와 유명세에 비해 한없이 조용하고 한가롭다. 유명한 대형 사찰처럼 사람들이 봄비지도 않고, 정해진 시간마다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불경 소리만이 산자락을 뒤흔들 뿐이다. 한적하게 잘 닦인 도로를 한참 오르다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산새들이 사방에서 지저귀고 산짐승들이 산기슭을 뛰어 다니는 소리에 밤에도 잠을 깨는 곳. 사람들의 손때를 덜 탄 듯, 산골짜기 여느 암자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한적하지만 봉정사의 역사는 실로 오래되고 그 의미와 가치 또한 남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 또한 드물다. 오히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동에 머물면서 들린 절로 더 유명한 곳이 바로 봉정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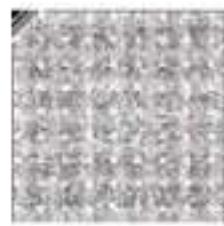
봉정사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신라 문무왕을 만나게 된다. 672년(문무왕 12) 의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이 창건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지만 사찰명의 유례를 따라가다 보면 독특한 설화가 많다. 봉정사 역시 그 유례가 매우 재미있다. 봉정사를 품은 천등산은 원래 대망산이라 불렸는데 능인대사가 젊었을 때 대망산 바위굴에서 도를 닦고 있던 중 스님의 도력에 감복한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굴안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는 전설로 '천등산'이라 이름 붙이고, 그 굴을 '천등굴'이라 하였다. 또한 능인스님의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봉황이 이곳에 와서 머물렀다고 하여 봉황새 봉(鳳)자에 머무를 정(停)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다고도 한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유서깊은 고찰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자료들이 소실되어 창건 이후의 사찰역사는 딱히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1972년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중앙칸 종도리 밑에서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하면 고려시대 공민왕 12년인 1368년에 옥개(屋蓋) 부분을 중수(重修)하였다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건립연대는





01

01 짙은 안개 낀 길로 나서는 봉정사 스님.

02 오랜 역사에 비해 소박한 사찰인 봉정사는 불비지 않고 조용한 게 매력이다.

03 본래 종루에는 사찰의 의식도구들이 있기 마련인데, 봉정사는 범종만 달아놓았다.

04 시도유형문화재 325호인 만세루에는 법고가 놓여있다.

05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늦은 밤까지 절을 올리고 가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05

그보다 100~150년 정도 앞섰으리라 짐작 된다. 그로 인해 극락전의 가치는 새롭게 해석되었고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인정받아 국보 제15호로 선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 주심포(柱心包) 형식인 극락전은 통일신라시대 건축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의 건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특히 경내에 있는 대웅전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55호로 지정되었다가 2009년 6월 30일 국보 제311호로 승격된 이력을 가진 역사적 산물이다. 봉정사의 정전(正殿)인 대웅전은 석가모니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가섭존자, 아난존자상이 있다. 다포집으로 난적석기단에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단층 팔작지붕을 지니고 있다. 건물 규모에 비해 낮게 보이는 기둥 위에는 내외 모두 2출목(出目)의 공포를 받쳤는데, 힘 있고 가식 없는 수법은 초기의 다포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창건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부의 단청은 채색이 뛰어나며 고려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중요한 회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오래된, 그래서 아름다운 절

봉정사는 앞서 소개한 것 외에도 보물 제1614호 후불벽화, 보물 제1620호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보물 제448호인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인 고금당 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속암자인 영산암은 2001년 11월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2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영산암 내 정원은 한국의 10대 아름다운 정원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 최근에는 봉정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숙소로 활용되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 봉정사의 아름다움 속에 숨은 역사와 시간의 흐름들은 그 빛을 바랜지 오래지만, 절 한쪽 뒷마루에 널린 도토리 한 움큼은 과거에 멈춘 시계처럼 계절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새벽이면 어디선가 날아온 코발트 빛 안개들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고단한 수행의 흔적들은 어김없이 새벽을 가르며 대지를 깨우는 곳. 다가오는 겨울, 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해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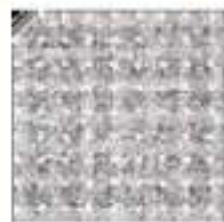
문화 지킴이

글: 김수지 | 사진: 문화 | 사진 기자: 조제공 |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 DSP엔터테인먼트



K-POP을 타고 세계로 흐른다

K-POP이 인기다. 아니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건 충분하지 못하다. K-POP 열풍이다. 이것도 좀 약하다. K-POP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K-POP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보는 것을 뛰어넘어 K-POP의 안무를 따라하고, 노래를 배우는 이들의 동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제2의 한류열풍이라 불리는 'K-POP'.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보자.



한류, 다시 한 번

오래전 한 차례 ‘한류’가 일었다. 몇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였다. 이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한국의 음식·상품·언어·생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호도도 증가했다. 일본인들에 대한 ‘한국 호감도 조사’(2004년 산경신문) 결과, 1996년 35%에서 2004년에는 56.7%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50대의 한 일본 여성은 드라마 <겨울연가>를 시청하기 전과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일본뿐이 아니었다. 태국 언론인 파빙 차차발 풍운 역시 한류 콘텐츠와 맞닥뜨리기 전 “지나치게 국수적이며 편협한 사회 등에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의 한국”으로 묘사했었다. 하지만 그는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의 시청자들이 한국의 모던 라이프스타일을 접하면서 오해를 줄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변화의 분명한 일단을 소개했다.

물론 한류를 둘러싼 위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국 방송사인지, 일본 방송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후지 TV가 역겹다”는 글을 올리는 이도 있었고, 중국은 아예 2006년부터 CCTV에 1년 동안 방영되는 한국산 드라마 방영편수를 4편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다시 한 번 불어오고 있다. 바로 K-POP을 통해서다.

신한류의 중심, K-POP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지적됐을 때, 새로운 미디어가 발견된 것은 분명 행운이었다. 한류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한류로 옷을 갈아 입었다. K-POP이 그 중심에 있다.

최근 만났던 한 일본 교포는 “한국인임을 숨기기 급급했던 게 내 유년시절 때의 일”이라며 “지금은 많은 일본인들이 친구 맷기를 먼저 청해오곤 한다”고 고백했다. 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SM 타운 콘서트 취재차 만났던 주불 한국문화원 조윤희 한국어 강사의 이야기는 더욱 솔직했다. “이곳에 머물며 프랑스 사람들한테 뭐 배울게 없나 따라다니기만 했던 게 20년”이라며 “이젠 내게 가르쳐 달라며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든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그는 되물은 바 있다. 남미의 K팝 팬들은 한국 취재진들에게도 수시로 이메일을 보내와 한국 가수들의 현지 공연을 주문하는 일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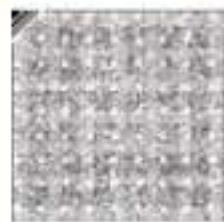
이러한 K-POP의 인기에는 SNS가 큰 역할을 했다.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져온 뉴미디어 시대는 국가적 장벽, 언어적 장벽을 허물고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에서 탈피해 대안적인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흐름을 확산시켰다. 그 대안적 대중문화가 마침 K-POP이었고, 이는 새로운 한류가 됐다.

한류팬을 한국팬으로 이끄는 K-POP

프랑스에서 만났던 막심파케씨는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는 모두가 수용하기에 ‘불개흐(천박한)’한 측면이 있다”며 “유럽에도, 아시아와 중동, 남미 전역에도 미국식 대중문화의 불편한 장면들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소하고 색다르게 즐겨볼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대중문화였다”고 말했다. 정작 국내에서는 선정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높지만 그는 “미국 문화에 비해 차라리 매우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타임>지도 뉴미디어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이 ‘한류’라고 지목했다. 유튜브에서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는 대개 6000만 건을 상회한다. 레이디 가가, 비욘세 등 ‘팍스 아메리카’의 후예들인 최고 인기 팝스타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 최다 뮤직비





TAIWAN



디오 조회수는 늘 K-POP 가수들의 차지가 된다. 혹자는 아이돌에 국한된 흐름이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장르의 다변화 현상도 왕왕 목격되고 있다. 일본 시부야의 록 레코드점에는 아이돌 위주의 음반 일변도에서 탈피해 이제는 자우림, 김창완, YB, 십센티, 바비킴, 다이내믹듀오 등 다양한 장르의 앨범이 진열되기 시작했다. 드라마를 보다 K팝에 빠져들고, 이와 함께 한국형 예능프로그램, 영화에까지 관심 영역이 확산된 것이 신 한류의 속성이자 흐름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재 새로운 한류의 소비 흐름은 단순한 해당 문화 콘텐츠 소비에 그치지 않는 경향을 지닌다. 우선 직접적인 콘텐츠 소비는, 이후 패션과 뷰티, 관광 등 파생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전되고, 이어 일반 상품 소비, 한국 전반에 대한 우호로 흘러간다. 프랑스의 팬들이 “우리를 한류팬이라 부르지 말고 한국팬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말한 그 증언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한류가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한류는 여전히 난제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10대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노동자적 위치에 대한 숙고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안팎의 고민은 많다. 물론 음반 제작자 측도 항변할 말은 있겠지만, 현재

까지 드러난 불편한 모습들을 한국적인 무엇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두 번째는 바로 한류가 더 이상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다수의 네티즌들은 국내 인터넷 댓글에 달리는 중국인 비하를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짝사랑’으로 한국을 찾은 동남아시아 지역민들이 혹시 모를 차별을 체감하거나, 우리 인터넷 댓글을 번역해서 읽기라도 한다면 또 어떨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동남아시아 지역민이 알게 된다면 한류의 끝은 결코 영롱할 수 없다. 미디어로 인해 창조된 한국에 대한 환상이 다시 미디어로 인해 곤두박질 칠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더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횡행하는 반인종적 태도와 제3국가에 대한 차별을 떨쳐 낼 수 있을 때, ‘한류’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류 열풍 속에 김구 선생이 수십년전 썼다는 <백범일지> 중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중략)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문화 강국을 염원하고 그것이 억조창생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파했던 선생이 지금 환생해 이 한류 현상을 목도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Copy Right? Copy Left?

인터넷 저작권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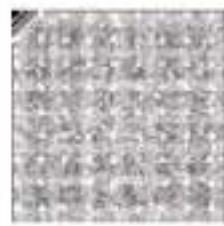
요사이 인터넷상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의 임의적인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국민권익 11+12월호에서는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 몇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출처만 표시하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이자 오해가 '출처만 표시하면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복사, 게재하는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저작권법 제7조). 다만 이는 단순한 부고, 인사동정,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한 단순한 사건사고기사 등 시사보도에 한정된다.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명백히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원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며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적법하게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재한 경우는 어떨까? 구매 당사자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은 분명하다. 단 그 허용범위 또한 해당 음원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또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수반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구매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UCC 제작 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위 세 권리주체 내지 이러한 권리를 선택 받은 협회의 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

UCC나 인터뷰도

저작권 침해 대상

자신의 인터뷰나 취재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거나 방송되는 경우 이를 개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업로드하는 것은 어떨까? 이 경우 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영화의 포스터, DVD 표지 등은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드 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영화에 대한 비평 또는 감상문 등에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인용규정으로 면책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한편, UCC를 제작할 때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패러디 기법을 이용해 UCC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를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패러디의 목적이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에 있어야 하고 이로써 비평을 위한 인용일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다만 패러디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히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회적 상황이나 일반 상황을 비평하는 경우도 패러디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쉽게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영화의 한 장면을 특정인을 풍자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편집했을 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링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현재는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율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웹 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simple link)와 이용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deep link)의 경우,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是很 어려울 것이다.

창작자에 대한 존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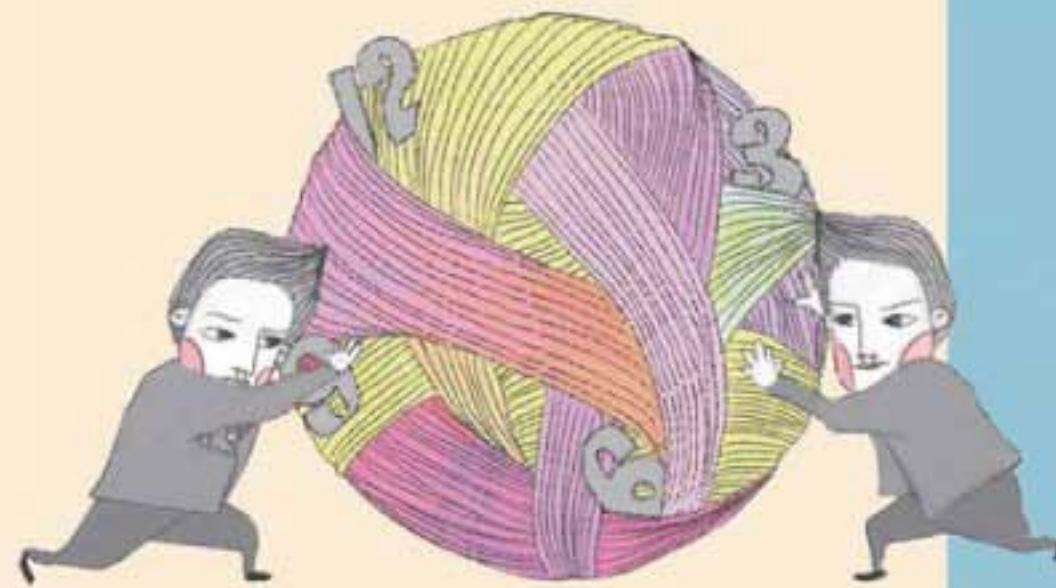
기본 명제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범위의 저작권(copyright)을 행사한다면 창작과 문화 향수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도 생기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하며 일부 저작물에 ‘CL’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한다. 이는 바로 Copyleft, 즉 저작물을 공유하여도 좋다는 표시다.

아직 논란이 많은 인터넷 저작권. 개인이 제대로 그 내용을 알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에 대한 표기를 꼭 남기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저작권과 자유로운 향유권 사이의 접점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글 문요한(더 나은 삶 정신과 원장/ 정신경영아카데미 대표)

갈등을 극복하려면? 연결고리를 찾아라!



살면서 가장 크고 흔한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다. 사실 인간관계와 삶이란 갈등의 연속이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갈등은 끊임 수가 없다. 그러나 갈등을 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라서 한 번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꼬인 채 자신의 입장에 갇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연결고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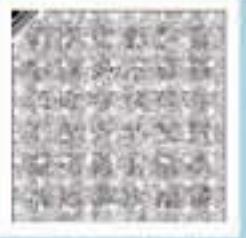
갈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거나 '나는 피해자이고 너는 가해자이다'라는 입장에 서기 쉽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갈등'은 그 단어 안에 이미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갈등은 한자로 칡나무를 뜻하는 갈(葛)자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런데 두 나무가 어떤 관계에 있기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두 나무는 모두 콩과의 덩굴식물인데 칡나무는 물체를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뒤엉키기 쉽다. 그래서 갈등(葛藤)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회피, 공격, 순응, 타협, 그리고 상생(相生)이다. 회피는 갈등이 있다는 것조차 외면하는 것이고, 공격은 힘과 주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순응은 갈등이 싫어 그냥 상대를 따르는 것이고, 타협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해 상생은 소통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갈등을 풀고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회피, 강요, 순응이 미숙한 갈등해결 방식이라면 타협과 상생은 보다 성숙한 갈등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갈등해결 방식은 누구에게나 그 비중이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이 모든 방식을 다 가지고 있다. 늘 회피하거나 늘 상생의 갈등해결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인간관계가 성숙해진 사회라면 점점 타협과 상생의 비중이 높아갈 것이다.

우리 사이에 교집합은 정녕 없는 걸까?

'100분 토론'과 같은 TV 토론회를 보면 갈등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대화가 중요하다지만 주장과



의견이 오고가는 대화란 결국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그럼 상생의 갈등해결 방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뉴스에 보도된 한 사례를 보자. 지방도시의 한 건물 주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안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매일 집회를 열어 반대시위를 열었다. 하지만 건물주도 물러서지 않아 양측은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갈 뻔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어 중재 역할을 했고 서로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 건물주는 상권의 축소로 점점 임대소득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도 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 생기게 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터놓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건물주는 장례식장 대신 정육식당을 열기로 했다. 주민들의 수요도 있고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겠다는 약속이 뒤따르면서 건물주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

차이는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아 해결하라

이렇듯 갈등을 풀려면 깊은 대화와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서로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갈등은 서로 원하는 것이 충돌하

여 '우리'가 깨지고 '나'와 '너'로 분리된 상태이므로 갈등을 풀려면 서로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로 연결될 공통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켜 줄 수단이 필요하다.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을 풀 때도 마찬가지다. 대개 상담실에 올 정도이면 서로에 대한 분노나 실망의 단계를 넘어 경멸과 깊은 원망의 감정이 뭉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상대가 좋은 관계를 바라지 않거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마음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주장이나 의견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어떨 때,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연결되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상대가 원할 때 상대가 원하는 방식의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실 서로가 원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상대가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거리가 먼 관계일 뿐이다. 쉽지 않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연결고리를 찾다보면 갈등은 풀려나간다. 그렇게 갈등을 상생의 방식으로 풀어낸다면 비로소 그 관계는 좋은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오면 10년이 젊어집니다!

국토 정중앙,
양구 두타연에서
청정자연을 만나다

바야흐로 걷기 열풍이다. 제주도 올레 길, 지리산 둘레 길을 필두로 각종 걷기 코스가 전국 방방곡곡에 계속해 뚫리고 있다. 운동 중에서 최고라는 걷기운동 명소 중에, 당돌하게도 10년은 젊어진다고 공언하는 길이 강원도 양구에 있다. 오랫동안 통제되었기에 태고의 자연이 살아 있는 계곡 두타연, 그리고 청정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로, 바로 영화배우 소지섭도 반했다 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소지섭길이다.



01 설국을 연상시키는 해안마을과 대암산 능선.

02 탐방객들에게 두타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해설사.



02

길 끝에서 만난 설국(雪國)

도박꾼들 사이에 오가는 속어 중에 ‘운칠기삼’이란 게 있다. 도박에서 승리하는데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란 뜻이다. 이 말은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통용된다. 다만 운칠기삼에서의 기가 도박과는 달리 기다림의 기를 의미한다. 70%의 운과 30%의 기다림이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하긴 도박이나 사진뿐일까. 산다는 게 다 운과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그런 의미에서 두타연을 찾아가는 사진여행은 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운이 좋았던 것은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인해 겨울초입에서 멋진 설경을 만난 것이다. 나빴던 것은 폭설 덕분에 하마터면 여행 자체가 무산될 뻔했음이다. 국토 정중앙이라는 양구에서도 20여 킬로미터 북쪽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위치한 두타연 입장이 어려워질 뻔했던 것이다.

12월 초 영동 산간지역에 폭설이 내려 수십 센티미터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다. 다행히 양구까지 가는 길은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예매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양구명품관 앞에 모였다가 해설사의 인솔 아래 이뤄지는 두타연 출입은 폭설이 올 경우 자동 무산될 수도 있다. 정해진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폭설이 내려 길이 안보일 정도면 당연히 출입불가일 테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두타연 지역만 기적처럼 눈이 내리지 않아 입장이 허용되었다. 정해진 코스로만 탐방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4km 올라가니 두타연 생태탐방로 주차장이 나타났다. 차를 세우고 해설사로부터 두타연에 얹힌 이야기와 주의사항을 들은 후 탐방로에 들어섰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것은 역삼각형 지뢰 표식과 녹슨 철모. 태고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이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04



05

- 03 눈이 시리게 맑고 푸른 두타연 전경.
04 소지섭 관련 소품들을 전시하는 두타연 갤러리.
05 두타연 생태탐방로가 시작되는 주차장 입구.
06 탐방로 바로 옆으로 무시무시한 지뢰 표식이 전쟁의 상흔을 보여준다.
07 멀리 보이는 설산 너머 금강산에서 발원했다는 계곡물이 청정자연을 담고 있다.



07



열목어 뛰어노는 청정계곡

탐방로만 따라 가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해설사를 따라 좌측 목조계단을 올라서니 갑자기 맑은 물소리가 귀청을 때린다. 목조 전망대 아래로 작은 폭포가 보인다. 갈수기라 수량은 적지만 모양이 꼭 한반도를 닮았다.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서 그런지 더욱 푸르고 청정해 보이는 폭포수 역시 통일을 갈망하는 듯 절절해 저절로 가슴이 저릿해온다.

하긴 맑은 계곡 옆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금강산에 닿는다지 않는가.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아래로 물은 연실 흘러내리며 열심히 통일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저기 멀리보이는 산 정상에 쌓인 하얀 눈처럼 얼어붙은 남북 간의 심각한 대치정국이 언제나 풀려 통일의 봄이 무르익을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전망대 옆에 서있는 정자를 지나 낮은 언덕을 오르니 너른 공터가 보인다. 두타연이란 지명을 넣게 한 두타사가 있던 절터다. 두타연의 자연을 담아가라는 카메라 존 너머 탁 트인 잔디밭을 보니 답답한 속이 조금 풀린다. 그 느낌 그대로 탐방로를 따라 오르니 열목어 뛰어노는 청정계곡이 싱그러움을 더하는 가운데 소박한 징검다리가 보인다. 이어 장마철에는 물에 잠겨 건너지 못한다는 징검다리 너머 돌계단 위에 오르니 호젓한 산책로가 나타난다. 한적해서 좋은 산책로는 두타연 전망대로 이어진다. 처음 올라와 한반도 모양의 폭포를 구경했던 전망대 맞은편이다. 여기서 낮은 언덕을 내려서니 나무로 만든 인공산책로 끝에 출렁다리가 보인다. 쇠줄에 묶인 두타교는 매우 튼튼하지만 사람이 올라서면 제풀에 출렁거려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찔한 재미도 선사한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 다시 작은 전망대 위에 서니 푸른 두타연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말 눈이 시리게 맑고 푸른 두타연이다.

소박해서 따뜻한 추억의 산하

두타연 생태탐방로를 돌아보는 데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실제로 두타연을 중심으로 원을 이룬 탐방로만

걷자면 그보다 빨리 돌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정계곡의 속살을 온몸으로 더듬다 보면 허락된 탐방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한창 조성 중이라는 소지섭길 51km가 모두 연결되면 체력이나 시간에 따라 자신만의 추억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탐방을 마치고 두타연을 벗어나 양구로 나오는 길에 예전 초소가 있던 자리에 조성된 소박하지만 정겨운 두타연 갤러리가 반긴다. 이곳 풍광을 너무도 사랑해 기꺼이 양구군 홍보대사를 자처했다는 소지섭 씨의 사진과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다. 작지만 아름다운 갤러리를 둘러보고 따끈한 커피라도 한잔 즐기고 떠날 일이다. 양구로 돌아오는 길에 산으로 둘러싸여 편치볼이라 불리기도 하는 해안마을 가는 길과 화천 평화의 댐으로 가는 길이 교차된다. 폭설로 인해 사방 천지가 눈인데 행인지 불행인지 눈이 피해간 두타연에서 보지 못한 눈 구경이 하고 싶어 해안마을을 향해 좌회전 했다. 그러나 걱정이다. 가파른 돌산령을 넘어갈 수 있을까. 다행히 2009년 12월 개통한 돌산령터널까지 제설작업이 완료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설국을 기대하며 터널을 빠져나오니, 아아 진짜 그림 같은 설경이 펼쳐진다. 마을을 둘러싼 산맥들이며 그 안에 잠겨있는 것 같은 집이며 길이며 마을 전체가 눈의 나라다. 카메라보다 가슴 안에 먼저 아름다운 풍광을 가득 담고 돌아오는 길, 차안을 덥혀주는 히터보다 훈훈한 마음. 이렇게 국토 정중앙 양구의 청정계곡, 두타연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여행 Tip

두타연에 가려면 인터넷으로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두타연 관광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오전 10시, 오후 2시 하루에 2번 탐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이다. 두타연 관광 후 양구 고대리 일대에 조성한 한반도섬과 한국이 자랑하는 화가 박수근 미술관 구경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문의 양구군청 033-481-2191



글 김정영(영화 칼럼니스트)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유쾌한 하이킥 어른들을 위한 성장 드라마 완득이

완득이의 기세가 꺽일 줄 모른다. 개봉 직후의 흥행은 기대에 못 미쳤다지만 꾸준한 입소문으로 이제 5백만 가까운 관람객이 완득이네 동네에 다녀갔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아버지, 도시 빈민의 빠듯한 삶….<도가니>에 이어 우리 사회의 음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영화 <완득이>는 훈훈함은 물론이고, 명랑하기 그지없고 매우 건강하다. 무엇보다, 완득이를 재미 없게 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파스하고 향수 어린 그들만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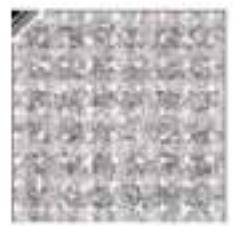
무대에서 춤을 추는 키 작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 완득이의 시점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부동거안은 남녀가 끈적하게 홀을 메우고 있지만 카바레 풍경은 음침하기보다는 아련하고 낭만적이다. 그리고 카바레의 폐업 소식과 함께 시간은 훌쩍 건너뛰어 카메라는 반항기 어린 청년 완득이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 종로의 어느 골목 어귀, 불법 노점은 단속하며 거칠게 아버지를 내쫓는 경찰을 보자마자 완득이는 어김없이 하이킥을 날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카바레와 종로 골목의 간극은 10여 년보다 훨씬 멀어 보인다.

가출한 완득이는 분명 현재 대한민국의 서울 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완득이를 체벌하는 ‘똥주’를 같은 반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데도 완득이네 집, 하늘과 조금 더 가까운 그 동네만 나오면 시계바늘이 꽤 옛날로 거꾸로 돌아간 듯하다.

복닥복닥 살아가는 완득이 이웃들을 보자. 달빛과 가로등은 가난한 그들을 따스한 온기로 품고, 그곳엔 성미가 고약한 사람은 있어도 악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동네는 정겨운 풍속화 같고 한편으로 현실의 고된 삶과 유리된 동화적 세계 같다. 아무래도 영화 <완득이>는 현재의 사회상을 재현하거나 고발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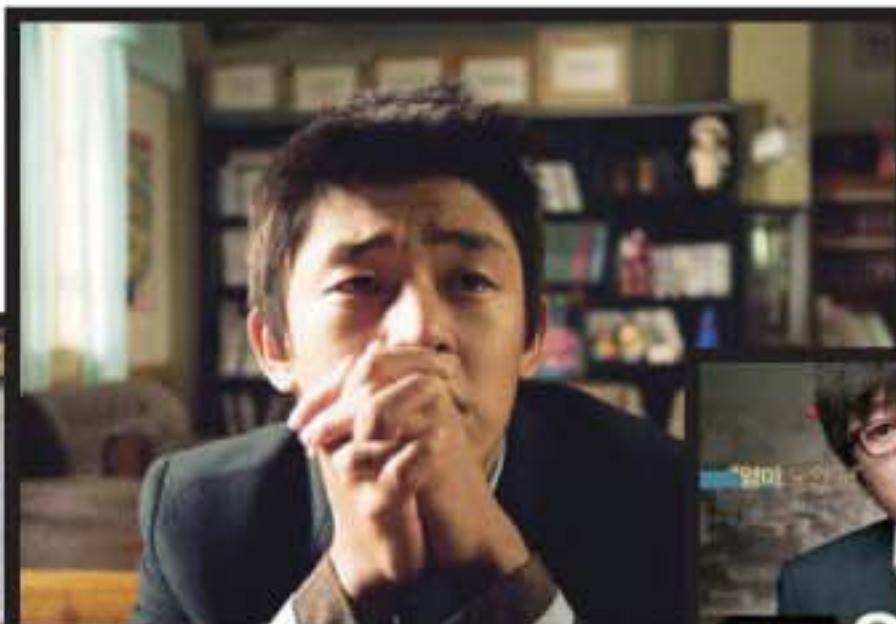
햇반 전도사의 수상한 활약?

대신, <완득이>는 생기 어린 하나의 세계를 완벽히 구축해냈다. 금방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 같이 생생한 인물들, 영화가 끝나도 계속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갈 것 같은 그들을 보면 우리는 향수 어린 정서를 감지하는지도 모른다.

그럼 이제 <완득이>가 구축한 세계로 깊게 발을 들여 보자. 일단, 수상한 한 남자가 포착된다.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 ‘햇반 전도사’라도 되는지 완득이만 보면 햇반을 구걸하는 이 앞집 남자는 실은 완득이의 ‘담탱이’다. 쉬크한(?) 완득이에게 끊임없이 친한 척하며 완득이를 뒤흔들어 놓는 ‘담탱이’의 행태를 보면, 완득이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가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 남자, 대학생 때 짱돌 꽤나 던졌나보다. 사회 선생님인 것도 수상한데 마르크스를 언급하며 은근히 자기의 사상을 드러낸다. 부자는 놀아도 계속 잘 살고 빈자는 죽도록 일해도 계속 가난한 이유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자본주의의 원리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뚩주. 그의 어록들을 나열해 보면, 가난은 죄가 아니야, 마사지 채칼을 파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세상 어디도 다 대학이야… 찌들어 보이는 것은 그의 외모일 뿐, 그의 정신은 젊다. 웬만한 청년들보다 더 급진적이다. 여전히 그는 수상쩍다.

사랑에 눈뜨고 연대에 동참하는 뚩주-완득 콤비

내막을 알고 보니 뚩주 또한 가출한 상태였다. 물론, 성인이므로 뚩주의 자발적인 독립임이 확실하지만 부유한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와 달동네 생활을 자처한 그는 ‘장기 가출’ 상태이며, 그에게 아버지는 자신에게 물려줄 게 많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아주 노동자들이라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한 악덕고용주일 뿐이다. 인권 대신 착취를 택한 부덕한 아버지의 세계를 박차고 나온 뚩주는 그래서 완득이의 멘토가 아닌 친구, 혹은 동지가 될 수 있다. 뚩주는 고립된 완득이를 세상 밖으로 끌집어내며 “우리 함께 연대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연대는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갈 때 이루어진다. 어머니를 찾으며 완득이는 가려져 있던 자기정체성을 찾았고 그때에 보이는 세상은 예전과 다를 것이다. 무심히 지나쳤던 동남아 사람들도 다시 보이고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도 새롭게 보인다. 그러니 “요즘엔 세상 모든 것이 다 너로 보인다”는 완득이의 연애편지는 보통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다. 인식의 확장은 사랑이요, 사랑으로 인해 연대가 가능해지므로… 게다가 이동주 선생님이 슬쩍 건네는 책 제목은 <휴머니즘의 옹호>. 그러니까 <완득이>는 연대가 뭐 별 거냐고, 휴머니즘을 저버리지 않고 살면 그게 연대 아니냐고 말을 건네는 영화다. 아주 명랑하고 유쾌한 태도로 무장한 채 말이다.



또 다른 세상

글 김재홍(충북대 철학과 조빙교수/정암학당 연구원, 〈니코마코스 윤리학〉 번역자)

우린 지금

행복한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이론학과 구별한다. 윤리학은 '좋은 행위'를 그 주제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 관한 중요한 저작으로 세 작품을 남겼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포함해서 〈에우데모스 윤리학〉과 〈대 윤리학〉이 그것이다. 이 세 작품은 정치학과 더불어 실천 철학적 작품들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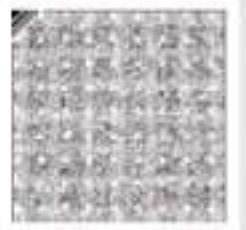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를 '본다(안다)', '행한다', '만든다'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학문의 영역을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실천학의 영역에 윤리학을 포함시켰다. 즉 윤리학은 우리의 삶을 진작하기 위해 실천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윤리학에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작품의 내용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이 먼저 쓰이고 이 작품을 보완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정치학〉과의 연결선상에서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 작품을 '타 에티카(ta ethika)'라고 불렀는데, 이는 윤리학이 '성격' 내지는 '성품'에 관련된 저작임을 암시한다.

'행복의 추구' 논하는 윤리학

윤리학의 주된 관심은 인간 행복(eudaimonia; 잘살/성공)의 본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덕 혹은 탁월성에 따른 활동'을 잘 사는 삶(eu prattein)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받아들였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 '좋은 삶'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는 행복을 '완전한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윤리적 덕(정의, 용기, 절제 등)이 이성적, 감정적,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 복합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플라톤과 달리 '최고의 좋음'을 파악하기 위해 학문적 훈련이나 형이상학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사실 윤리적 덕 혹은 탁월성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서 획득되는 품성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말하듯이 용기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용기라는 탁월성 내지는 훌륭함이 형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살기' 위해서는 친애(philia), 쾌락, 영예, 쾌락, 부와 같은 '좋음'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개별적 좋은들'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유럽인의 삶의 방식과 교양, 지성사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고전을 들라면 여러 작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독보적이다. 이 작품을 제외하고 서양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유럽 그리고 세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참으로 엄청나다.

Book

없다. 개별적 상황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과 습관을 들임으로써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 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개별적 상황 속에서 특정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 경우에 우리의 행위를 선택하게 해주는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는 단순히 일반적 행위규칙을 배우는 것으로 획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위와 숙고, 그리고 감정적·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기술을 통해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실천해야만 ‘잘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에 머물지 말고 신적인 삶을 살아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첫머리에서 “모든 기예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렇게 좋은 인간들이 모여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정치적 동물’로서 완전한 삶이고, 한편으로는 ‘이성적 동물’로서 좋은 삶을 목표로 하

는 인간들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 세상의 행복에만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진정 행복한 삶은 인간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속의 신적인 그 무엇이 있는 한에서”라고 말한 이가 바로 그다. 그래서 그는 인간 이상의 신적인 활동이 다른 탁월성에 따른 활동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성이 인간에 비해 신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성을 따르는 삶 이야기로 인간적인 삶에 비해 신적인 삶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던져주는 답은 바로 이것이다. 현재의 삶이 아니라 지성을 따르는 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책무라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바로 그 책무를 계을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 돌아볼 때다.

권익위, 4일 창원시청에 지역상담센터 개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창원시청에서 권익위 창원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창원시청 민원실내에 설치된 권익위 창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들에게 생활민원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직접 행정·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매일 오후 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이 상주하며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한다.

권익위는 현재 전국 8개 지역에 상담센터(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춘천, 전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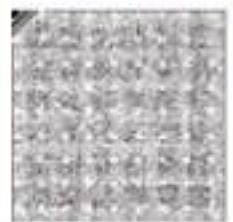


재외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한-태국 옴부즈만 MOU 체결

지난 12월 5일 권익위는 태국 옴부즈만과 만나 현지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는 상대국에 나가있는 자국민과 기업들의 고충민원을 상호 적극적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으로, 김위원장과 태국 옴부즈만이 만나 상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태국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1만 8천여 명의 태국 거주 재외국민 권리보호 채널이 공식적으로 확보됐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AOA 총회에 참가해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들 사이에서 권익위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한국의 고충해결 시스템 등 관련분야 노하우와 경험을 발표·공유하는 등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ACRC NEWS

공익신고 보호제도 전국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16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17일에는 부산광역시청에서 첫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및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단체들까지 참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익신고의 세부범위와 보호내용, 보상 절차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됐고,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조사항도 상세히 제시됐다. 앞으로 권익위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및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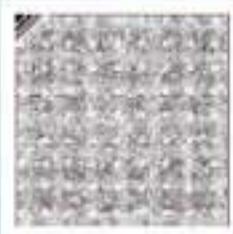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렬

권익위가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기 위해 '김치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월 26일 1과 1결연을 맺은 지역 단체를 방문해 성금과 함께 배추(김장재료) 500포기, 무(50만원 상당), 굴 8상자(20만원 상당) 등을 후원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참여했으며 롯데건설에서도 15명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돌아왔다.

이번에 방문한 '선덕원'은 고아, 기아, 미아, 결손가 정 어린이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한 60여 명의 여자 어린이들의 보금자리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매년 4~5명의 아이들이 선덕원을 떠나 자립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금으로 생활하게 된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우리 사회 약자층의 권리와 따뜻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네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월 31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예술이 얼마나 뛰어난 경지에 이르렀는지 '문화지킴이'에 소개된 국당 조성주 선생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춤추는 필묵, 그 틈에 피어나는 예술이라는 말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무대를 활보하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서예 작업에 감탄했고 앞으로 이렇게 멋진 분들이 더 많이 <국민권익>을 통해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최병갑(전남 화순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충북 옥천 지역 대표적 정체구간인 이백 삼거리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나 봅니다. 주민들의 숙원인 통로박스 확장사업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리 힘써주니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각종 개발과 도로 개설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번 옥천군 기사처럼 좋은 소식만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허무완(충북 단양군)

국민권익위원회 노력과 열정으로 다양한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원함과 통쾌함을 느낍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고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과 활약을 속속들이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민권익>의 즐거운 소식들 덕분에 자랑스러웠던 201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주찬(부산시 연제구)

매번 <국민권익>을 통해 새롭고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산사의 주역을 따라 옛 길을 가닐다 – 오대산" 이야기가 가장 좋았어요. 상쾌한 가을 공기를 느낄 수 있고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자연을 엿볼 수 있는 멋진 곳 같습니다. 천년의 길을 간직한 오대산에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름다운 기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한지성(전남 여수시)

지난호 정답



틀린그림찾기

사진에서 달라진 부분 5곳을 찾아 독자엽서에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틀린그림찾기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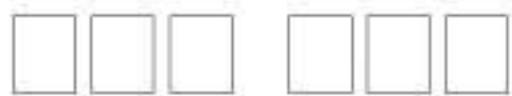
독자소리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풀칠하는 곳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주소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 1. 1 ~ 2011. 12. 31

서대문 우체국
제 631호

받는 사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1 2 0 - 7 0 5



11+12 2011 VOL 22

'국민권익'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입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독자들과 함께 하는 '국민권익'이 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 격려, 충고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는 더 나은 '국민권익'지를 만드는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①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③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 ④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구독희망주소 :

E-mail 주소 :

(E-mail 주소를 적으신 분은 자동으로 정책고객으로 등록되며, 권익위 소식, 웹진 등을 보내드립니다.)

www.acrc.go.kr

독자답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소식지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참세상,
튼튼한 뿌리가 되는

ACRC



www.acrc.go.kr



110 국민콜

정부대표민원전화

|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